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피아노 조기교육의 실태를 통한
효율적 지도방법 연구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현 루 디

2010년 8월

피아노 조기교육의 실태를 통한 효율적 지도방법 연구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지도교수 박 순 방

현 루 디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현루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인
위 원 _____ ①인
위 원 _____ ①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8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이론적 배경	3
1. 조기음악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3
2. 피아노 조기 교육의 필요성	5
3. 아동기에 대한 일반적 고찰	8
1) 아동기의 심리적 특징	8
2) 아동기의 음악적 기능 및 신체적 기능발달	9
3) 피아노 인지발달단계 이론으로 본 음악적 성장단계	10
4. 피아노 교육을 위한 기본적 요소	13
1) 동기유발	13
2) 학습시간	14
3) 교재	15
4) 교사의 역할 및 자질	15
5) 부모역할	16
III. 조기 피아노 교육의 실태조사 및 분석	17
1. 연구의 대상	17
2. 연구의 결과	17
3. 연구의 요약	31

IV.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 지도방법	33
1. 자세	33
1)앉는 자세	33
2)손 모양과 손목의 자세	34
2. 리듬	37
3. 시창과 청음	46
1)시창과 청음	46
4. 감상	51
V.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59
국문초록	61
abstract	63
부록(설문지)	66

표 목 차

<표1> 선생님의 전공	18
<표2> 학원 수강인원 중 미취학 아동 수	18
<표3>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	19
<표4> 피아노를 배우기에 적절한 시기	20
<표5>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시간	21
<표6> 피아노 교육 시 먼저 하는 교육	21
<표7> 피아노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	22
<표8> 리듬교육	23
<표8-1> 리듬교육방법	23
<표9>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	24
<표10> 미취학 아동들의 동기유발방법	25
<표11> 미취학 아동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적절성	26
<표11-1> 적절한 교재사용	26
<표12>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교사자질, 부모역할의 중요성	27
<표13> 자세교육 지도	28
<표14> 시창, 청음	28
<표15> 감상교육	29
<표15-1> 감상곡	30
<표16> 피아노 교육을 통해 교육적 결과	30

그림 목 차

<그림1> 공을 잡듯이 손 모양	35
<그림2> 컵 모양으로 손 오므리기	35
<그림3> 동물의 사육제	55

악 보 목 차

<악보1>똥보 아저씨	44
<악보2>도레미 노래	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및 생활,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과열되면서 조기교육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취학 전 아동의 조기 음악교육 또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됨에 따라 음악교육에 있어서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피아노 교육이 기본적인 필수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아노는 조기 음악교육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악기이다. 피아노는 다른 악기들에 비하여 음역과 표현범위가 넓고, 화성악기여서 음악의 3요소를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며, 악보와 건반의 관계가 자연스러워 조기음악교육에 가장 적절한 악기이기 때문이다. 또 피아노는 가장 기초적이고 종합적, 효율적으로 음악성을 표현하는 종합악기이며, 화성악기와 선율악기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 유아 때부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이다.

피아노를 치게 되면 양손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뇌의 발달을 촉진시켜 두뇌회전이 빨라진다. 더불어 양손과 눈과 귀 등 신체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 뇌가 균형 있게 발달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피아노 교육은 단지 기술뿐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생활습관을 길러주며 창조적이고 대중적이어서 인격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음악교육의 효과적인 매체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피아노를 학습함으로써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유년기의 지능계발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을 자극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이루는 전인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피아노 조기교육이 아동의 성장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적 체험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체험은 아동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¹⁾

이러한 피아노 조기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바람직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이 음악교육을

1)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2, p.103.

통해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주며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피아노 조기 교육은 주입식 교육, 단순 기능 전달이 아니라 음악의 미적경험을 통해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전인교육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피아노 조기 교육은 대부분 음악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아노를 통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조기교육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피아노 조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음악학원에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각종 관련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지도방법 제시하여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피아노 조기교육의 지도방법, 방향을 제언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피아노 교육에 관한 각종 문헌과 관련 논문으로 선행연구를 하고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왕성하고, 손가락의 발달 및 음악적 기능과 신체적 발달이 급속히 성장을 하고, 피아노 연주에 필요한 손, 발의 발달 속도가 빠른 시기인 미취학 아동을 연구 대상 연구하였다.

설문 방법은 제주도내의 피아노 학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음악학원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무기명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진행 방법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조기 교육을 하고 있는 제주도내 학원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분석,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올바르게 보다 효율적인 피아노 조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조기음악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음악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음악은 많은 예술 가운데서 감성에 호소하는 면이 강하다. 음악은 그 감정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하므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유아기의 음악교육은 마음을 윤택하게 하며,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해야 한다.²⁾

아동기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는 미숙하나 빠른 성장을 보이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며 비사회적이다. 여기서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거나 독단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발달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³⁾

그래서 음악교육에서 아동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들은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교육은 아동의 창조성과 개성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예술분야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음악적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음악적 감각력이 유아기 전반에 걸쳐 급속히 발달된다.

조기 음악 교육면에서도 아동에게 소리를 탐색하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음악의 근본 요소들에 대한 능력을 진단하여 아동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함으로써 아동의 창조성과 음악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⁴⁾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음악적 능력에 있어서 취학연령 후에는 기술적 측면은 발달할 수 있지만 음악적 능력은 발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음악교육자 코다이((Kodaly)는 4~7세까지의 유아기야 말로 음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불

2) 전형성, 「최신유아음악교육」, 태림출판사, 1993, p.85

3) 류덕희, 「음악교육학개론」, 학문사, 1973, p.169.

4) Barbara L. Andress, Music in early Childhood, "Washington D.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73, P.2.

어떻게 주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확신했으며, 어린이의 일생에 결정적인 음악적 경험은 6~16세 사이에 얻어지며 이 때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보다 더 쉽게 배우고 재능도 잘 늘어나는 시기라고 하였다.⁵⁾

이러한 초기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신체, 정서, 창의력 발달 등을 쉽게 도모할 수 있게 때문에 음악활동의 대부분이 유아기, 미취학 아동기에 시작되어야 하고, 풍부한 음악적 경험은 일생동안의 음악적 삶에 필요한 자양분이 된다. 그리고 조기음악교육은 전문 연주자로 키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동들이 올바른 성장, 바람직한 인격과 정서를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아동들의 창의력 계발과 개성적 성장 또한 촉진시킬 수 있다.

미취학 아동들은 인격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하고, 올바른 경험을 통하여 인간적인 성장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미취학 유아기에 어떤 교육적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보냈는가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의 능력과 인성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조기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성을 발달시키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위한 정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음악적 미의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든(E. Goden)은 모든 지식의 흡수력이 최고조인 유아부터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아동들이 너무 늦게 음악을 시작하여 음악을 일상생활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언어를 배울 때 읽고 쓰기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부터 배우듯이 음악교육도 음을 읽고 쓰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법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셉 호프만(Josef Hofmann)은 “모든 음악적 훈련을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며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보다 빠른 연령에서 올바른 음악교육에 의하여 훌륭한 음악가로서 대성할 수 있다.”라고 조기교육을 강조하였다.⁶⁾

미취학 아동들은 청각각이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또한 청각능력 뿐만 아니라, 음고의 판별력이나 리듬능력이 가장 급속히 발달하여 성인의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조기음악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지능은 대부분 아동기에 완성되며 특히, 미취학 전에 지능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블룸(Bloom)은 아동기의 지능이 4세까지는 50%, 7~8세까지는 30% 그리고 17~18세까지는 20%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6세를 전후하여 가장 활발한 지능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80% 지능이 형성되고 가장 활발한 아동기에 조기

5) 전인옥, 이숙희, 「유아음악교육」,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p.3.

6) 장나영,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 지도방법”,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p.6.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에 어떠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성장해 왔는지가 중요하며 성인이 되어서의 인성 또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조기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발달심리학자 피아제(Jean Piaget)는 어린이의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유년기에 이루어지는 지능계발과 음악적인 체험은 어린이의 지적성장을 자극하여 음악교육은 물론 모든 교육의 든든한 기초를 이루며 또한 바람직한 인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들이 주변 목소리를 구분하거나 음악을 흥얼거리거나 소리를 정확히 구분하고, 여러 가지 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음악공부의 시작이므로 음악 교육은 아동기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동들은 음악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자극하고 음의 시계와 개념을 개발시키며 자신을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줄 알게 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적성장을 도와준다. 정서적 성장은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느끼고, 감지하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발달하게 된다.⁷⁾

음악적 능력을 형성하는 여러 능력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음악적 감수성이 유아기에 급격히 계발되고 유아의 모든 발달영역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음악을 듣고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창작하는 다양한 유아기의 음악적 경험을 통해 유아의 지적, 신체적, 언어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감수성, 사회적 발달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됨에 따라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피아노 교육이 기본적인 필수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아노는 다른 악기들에 비해 많이 보급되어 배우는 학생의 연령층은 계속 낮아지고 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아노는 음악학습에 기초를 마련해주는 대표적인 악기로서 음악 교육을 하는데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아노는 음악학습에 있어

7) 이관섭, 「유치원 교사를 위한 유아음악교육」, 양서원, 2002, p.55.

서 기초적이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악기라고 할 수 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들도 교육을 할 수 있지만 피아노는 이러한 악기들에 비하여 음역과 표현범위가 넓고, 화성악기여서 음악의 3요소를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피아노의 건반으로 음을 시각화하여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악보와 건반의 관계가 자연스러워 조기음악교육에 가장 적절한 악기이기 때문이다.

다른 악기에 비해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피아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아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피아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악표현에 필요한 모든 음역의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피아노는 현악기나 관악기에 비해 넓은 음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둘째,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고 특별한 기초적인 이론 없이도 자연스럽게 음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단성 내지 다성 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고 멜로디와 화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다.⁸⁾

넷째, 피아노는 독주, 반주, 합주악기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건반과 악보의 연계가 쉬워 설명과 이해가 빠르다.

이러한 피아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악기보다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되며 시작할 수 있다.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에게 너무 기교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음악을 즐기고 이해하는 능력과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피아노를 배우으로써 아이들의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유년기에의 지능계발과 함께 음악적 체험을 통한 어린이의 정신과 신체적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바람직한 인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피아노 악기를 이용하여 조기음악교육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정서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고 음악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관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둘째, 피아노를 연주하려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피아노를 배우며 얻어지는 올바른 자세는 균형 있는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며 아동의 신체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8) 주영욱, “피아노교육이 모든 음악 기초적 단계가 되는가?”, 음악교육, 1989, 6월호.
Erzebert Szonyi, 조흥기 역, 「코다이 음악교수법」, 다라출판사, 1994 p.44.

수 있다.

셋째, 청각적 민감성을 확립시키고, 지식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넷째, 절대음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악기에 비해 피아노는 고정 음을 내기 때문에 음의 정확한 소리를 알 수 있다.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절대음감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건반악기를 통한 학습은 절대음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들은 음악의 미적경험을 통해 풍부한 정서적 안정 도모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아동들의 신체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첫째,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다.

피아노를 칠 때는 오른손과 왼손,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 등 신체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 머리로 생각해야 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하고 신체로 표현해야 하는 종합적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적이고 이성적인 면과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양쪽 뇌가 균형 있게 발달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둘째,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

피아노를 배우고 연습하며 연주하는 모든 과정에는 집중력이 필수적이다. 악보의 음악을 알고 이해하는 데에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셋째, 발표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피아노 연주를 통해 자신이 만든 음악을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자기화하여 표현하고 발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 표현력과 발표력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연습을 통해 곡을 완성했을 때 아동들은 자신이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대중 앞에서 성공적인 발표를 했을 때에는 이 성취감이 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좋은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연습을 해야 하므로 아동에게 규칙적인 습관과 집중력을 길러 줄 수 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감수성, 통찰력, 상상력을 계발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훈련도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학습자는 예술적 경험을 할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자기만족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술적 경험에 대해 교육학자 듀이(Dewey)는 “경험 그 자체가 조직적이고 정돈된 동작을 통해 내적으로 통합하고 성취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정서적인 만족감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또,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역시 자아실현과 인간육구의 충만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한다.⁹⁾

이러한 피아노 교육이 주는 이점을 통해 아동들의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미취학 아동들은 피아노를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피아노를 통한 전반적인 음악성 계발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아노 교육이 주는 이점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므로 절대 값으로 환산하거나 매길 수 없다. 그러므로 피아노 교육이 미취학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3. 아동기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아동기의 심리적 특징

피아노 조기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의 심리적 특징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아동기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해야 아동들에게 올바른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

아동기 심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대상에 대한 집중시간이 짧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자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둘째, 아동들은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도 과장된 감정 표현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정의 기복상태가 점차 완만해진다.

셋째, 감정표현이 솔직하다. 아동들은 표출이 매우 빠르고 자주 나타난다.

미취학 아동의 일반적 특징은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의 성격 또한 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아동기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자기의식화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신체적 자기의식화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성취도의 발달이다. 성취도는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정도로 말하는 것으로서 아동이 새로운 활동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완성해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9)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이화여자대학출판부, 2007, p.24.

셋째, 자율성이 발달한다. 아동은 자신의 몸을 자유로이 통제할 수 있어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넷째, 자존감이 발달한다. 자존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와 그들이 행하는 일의 성공을 예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역할에 대한 의식이 형성된다. 성유형은 어떤 문화 속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행동 태도, 가치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들의 심리적 특징을 이해는 아동들의 조기교육방법에 중요한 역할, 단서를 제공해 주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기의 음악적 기능 및 신체적 기능발달

아동기의 피아노교육에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아동이 어떠한 신체적 발달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3~4세 때에는 급속한 신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눈, 손 근육운동이 많이 발달하며, 대근육의 발달로 인해 힘도 강해진다. 빠른 아동은 손끝운동이 발달되어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다룰 수 있다.

- 5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신체적 운동이 자유로워지며, 양손이 따로따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피아노의 양손사용이 가능해진다.

- 6세가 되면 좌, 우 개념이 확실해지며 손가락이 상당히 발달하게 된다.

- 7세 되면 손가락 운동이 대단히 빨라지고 부드러워져서 피아노연습이 이루어지며 악보를 읽는 능력도 상당히 발달된다.

슈타이너(Rudolf Steiner)는 저학년의 시기는 ‘생명체’로서의 발달 기간(태어나서부터 7세까지)의 말기, 또는 ‘감정체’로서의 발달기간(7~14세까지)의 초시에 해당된다. 그것은 어린이가 오감의 강함 생명체로 나서는 시점이며, 지력과 기억력이 태동하는 시기인 동시에 아직은 보호막 속에 싸여있는 감정체가 서서히 분화 작용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양한 종류의 음악적인 경험을 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과 심성의 면에서 상당한 발달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태어난 이래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며, 피부로 물체를 접촉함으로써 오감 기능의 점차적인 발달을 통해 성장해왔다. 오감의 기능의 발달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생명체적 성장인 셈이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는 인간에 이러한 생명체적 성장이 어휘나 개념에 의한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먼저 오감에 의해 외부 세계를 감득하고 그것에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청각각과 운동신경, 근 감각 등은 영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유아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했고, 특히 7세부터 기억력과 상상력, 창의력, 어휘 사용 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발달을 보인다.

그리고 소리의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 음색 등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흐름결의 특징과 변화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며, 그 특징에 따라 신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들려주는 흐름결과 가락을 정확한 소리로 따라 낼 수 있으며, 어떤 사물의 움직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소리를 자신의 소리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 소리의 진행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음높이를 기억할 수도 있다. 음악을 들을 때 주로 흐름결과 가락에 중점을 두고 듣지만,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음향을 통해 특정한 대상을 상상할 수도 있게 된다.

음악교육은 아동의 이러한 신체적 발달을 돕는다.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동작으로 표현하기 등의 음악적 경험은 유아의 눈과 손의 협응력 뿐만 아니라 근육의 조절 능력을 증가시켜 주고 신체를 움직이는 실험과 탐색을 하도록 도와준다.

3)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 이론으로 본 음악적 성장단계

피아제(Jean Piaget)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발달심리학자로 손꼽힌다. 피아제 교육에서는 물론이고 그의 교육방법은 현재 모든 교육적 영역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인간의 적응과 발달의 문제를 인지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아동의 감각, 지각, 사고, 추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인지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음악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인지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음악을 통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배우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무시한 학습은 아동들의 학습효과를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를 통해 각 아동의 발달에 맞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교육 심리학자들의 여러 방법들을 바탕으로 음악적 성장의 특성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정리하였다.

(1) 감각운동기(출생에서 약 2세까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각 기능이다. 생후 2개월경부터 사람의 소리, 특히

엄마의 소리에 반응하며 5개월을 전후하여 음악을 듣고 느낌을 몸짓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운동신경, 근 감각 등과 함께 아기의 청 감각도 발달하기 시작한다. 청 감각은 귀의 물리적 기능으로서의 단순한 청력의 차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음 현상의 특징을 분별하는 청각적 내면 작용을 뜻한다.

감각 작용이 감각 운동기의 아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체 기능이라는 사실은 음악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청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아기의 청각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 영아의 음악적 체험은 흔히 부모의 품안에서 음악적인 느낌에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아기가 부모와 함께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흉내 내어 보고, 간단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의 놀이를 통해 음악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음악적 감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감각운동기는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리듬 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물건이나 악기를 제공하여 주고 리듬감 있는 행동,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면 음악 감각 발달에 도움이 된다.

(2) 전 조작기(약2세부터 7세까지)

전 조작기는 음악적 능력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청각과 청각에 대한 반응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전 조작기 동안에는 인지 발달과 함께 아동의 음악적 능력도 급속히 성장한다.

2~4세 유아들은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노래를 좋아한다. 느린 박자보다는 빠른 박자의 기본 박을 더 쉽게 따라하고 음악에 맞추어 신체표현도 자유롭게 한다. 4~6세 유아들은 서로 다른 음색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가락악기를 즉흥적으로 다룰 수 있다.¹⁰⁾

교사와 부모가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적절한 음악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그들은 소리의 썩여림, 음높이, 음길이 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흐름결 및 가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들려준 소리를 정확하게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이 시기에 음악적 능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청 감각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에게는 노래 따라 부르기, 악기 소리를 듣고 표현 대상 알아맞히기, 청음 놀이하기, 흐름결을 듣고 따라 손뼉치기, 노래의 빠르기에 따라 걸거나 뛰기,

10) 성경희, 「유아들의 음악세계」, 세광출판사. 1987. p.9

단순한 음악을 들으며 음악의 특징에 따라 무용하기 등 음악적 개념에 초점을 둔 청각 및 촉각에 의한 음악 놀이와 신체 동작과 신체 동작과 관련된 음악 놀이들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청각감과 반응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구체적 조작기(약7세부터 11세까지)

구체적 조작기의 초기 단계인 7세경의 발달 특징을 보면, 음악의 셈여림과 음색,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흐름결에 흥미를 가지며,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왕성해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떤 소리나 사물의 움직임이 지니는 독특한 흐름결의 형태를 소리로 나타내기, 청음 놀이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단순한 음악 듣기의 활동이 권장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음악 요서의 보존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8~9세는 음악적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청각감이 인생 중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각 기능이 음 현상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한다. 또 수 개념이 충분히 발달하기 때문에 음계 및 음표의 수리적 조직에 적응할 수 있고, 손의 근 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여 무리 없이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기호가 형성된다.

따라서 아동의 청각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 놀이, 악보 읽기와 쓰기, 악기 배우기, 여러 종류의 음악 듣기 등의 음악 체험이 적절하고도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10~11세경이 되면 아동들은 집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력이 크게 향상된다. 따라서 중창 및 중주 활동, 합창 및 합주 등의 활동이 권장되며, 이를 통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음악적 충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아동기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 넓게 성숙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인지적 측면에서 볼 때, 음악적 현상의 보존이 가능하게 되며, 음악적 개념도 현저하게 개발된다. 이 시기에 바람직한 음악 체험만 이루어진다면 음악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는 단계이다. 또 감정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아동들은 감정을 점차 세밀하게 분화시켜 표현하기 시작한다.

희로애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외경의 마음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감정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형식적 조작기(약11세부터 15세까지)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지적, 감정적 측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가지는 유기체적 존재로 성숙한다. 급격한 신체적인 성숙을 보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 추상적 사고력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고, 개성이 급속히 발달, 가치체계가 형성되며, 미래를 위한 목표도 확립된다.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음악적 특수성과 지적수준 등이 음악지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측면이 된다. 청소년들은 개인별로 음악적 욕구와 필요를 지니며, 때로는 음악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한 음악으로부터 감성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지적인 충족감도 동시에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음악적 논리의 관련성을 음향과 추상성, 음악의 창조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4. 피아노 교육을 위한 기본적 요소

1) 동기유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이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기유발은 각 개인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게 만드는 내적인 추진력이다. 11)

아동들은 스스로의 의지 또는 부모님의 의지로 피아노를 접하고 시작한다. 어떤 식으로 피아노를 접하더라도 피아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이다.

아무리 좋은 교재, 실력이 좋은 교사라 하여도 아동들의 동기유발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학습은 좋은 학습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피아노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 지루해 하고 흥미를 잃기 시작하여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처음 접하는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피아노와 놀이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하면서 피아노와 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들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피아노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나 실기위주로 하기보다는 실기와 신체활동을 병행하여 음악에 접근을 하면 더욱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음악을 접하게 될 것이다.

11) 길애경, 임미경, 「초등음악지도법」, 수문당, 1996, p.41.

동기유발은 내적 동기유발과 외적동기유발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인 동기유발은 아동들의 흥미와 욕구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고 외적동기유발은 학습을 통해 학습에 대한 성과나 보상으로 인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2)

아동들의 피아노 학습을 위해 강화와 보상, 처벌 등으로 인해 동기유발을 일으키도록 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강화와 보상으로 인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 아동이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과 교사의 관찰, 아동의 연구 그리고 부모의 역할과 관심이 이루어져야한다. 어느 한쪽만 지대한 영향이 크더라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 학습시간

아동들은 30분 이상 피아노의자에 앉아 있기 힘들며,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 붙잡아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시간을 나눠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학습시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배우는 것보다 평생 동안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를 인식시켜줘야 한다.

보통 아동들은 흥미가 있는 놀이를 하더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3세 때에는 5~13분, 4세에는 13~24분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 13~30분의 학습시간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13) 그러나 아동들은 심리적인 특징과 정서 상태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학습시간은 아동의 반응여하를 보면서 적절한 시간으로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피아노만 연주하기보다는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노래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거나, 리듬 치기 등의 교육을 통해 음악적 놀이를 전개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유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아동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보다는 한 번 학습할 때 하나씩 충분히 학습을 해야 한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면 아동들은 힘들어하며 지루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차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동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사는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12) 유기섭, 「교육심리학」, 동문사, 1993, p.140.

13) 송정이, 「피아노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1986, p.82.

3) 교재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아동에게는 처음의 경험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처음 접하고 경험한 것을 신기해하며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다. 교재의 선택은 아동들이 피아노에 대한 흥미유발을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각 아동들의 수준과 연령, 능력에 기초하여 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쓰이는 음악교재는 아동기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인 특징을 모두 고려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재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피아노 교육을 위한 교재는 많이 출판되고 있다. 고전적인 초급교재로 바이엘이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어져 오고 있으며 베스틴, 어드벤처, 알프레드 등의 새로운 교재들도 나오고 있다. 교재를 선택할 때는 아동들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4) 교사의 역할 및 자질

모든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리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사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아동들을 가르칠 때 열정을 가져서 아동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열정을 갖고 가르치면 아동들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스즈키(Suzuki Shinichi)는 “무엇보다도 교사는 참된 교육,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심 그리고 어머니들의 사랑에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¹⁴⁾

셋째, 아동기의 특징과 정서, 심리를 잘 파악하여 아동들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령지 않고 아동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 아동들에게 음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각 아동들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음악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격과 정서를 갖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개별 아동들에게 적절한 음악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최적의 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하여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흥미나 사전지식을 이해하고 비형식적

14) 스즈키, 「유아의 재능교육」, 장학출판사, 1981, p.12.

또는 형식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동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은 중요하다. 음악과 관련지어 아동의 성취와 진보에 대해 끊임없이 기록해야 한다.

넷째, 질문자, 문제제기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동 스스로 음악과 관련된 개념을 형성하고 음악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구성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섯째, 평가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아동의 발달적 수준과 진보를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에 기초한 교육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하고 있는 교육이 아동들에게 적절한지 아동들이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습방법을 발전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명언이 있듯이 교사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낌없이 칭찬, 관심 및 격려를 많이 해야 한다.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얻게 하도록 해야 한다. 아낌없는 칭찬과 관심을 인해 아이들은 음악에 대한 욕구와 음악에 대한 관심을 키지며 더 열심히 배울 것이다.

5) 부모의 역할

가정은 아동들에게 일차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다. 아동들의 음악적 능력과 소질을 일찍 파악 할 수 있는 곳도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겨 버리지 말고 자녀의 학습의 태도, 자녀가 어떠한지를 잘 파악하고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차적인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연습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넷째, 형식적인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적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들에게 강제로 시키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째, 아동기는 신체발달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보살펴주어야 한다.

Ⅲ. 피아노 조기 교육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조기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아노 학원 교사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음악학원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후 그 자리에서 받은 후 통계를 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16문항으로 제작하였다.

2.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 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취하였다.

본 설문지의 문항은 이경진(2003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의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 지도방법 연구’ 박소영(2005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의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차홍수(2002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피아노 지도의 효율적 방향 연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현 실태를 통해 효율적인 지도방법 연구를 위한 세부 항목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선생님의 전공

피아노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의 전공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 선생님의 전공

구분	명	비율 %
피아노	65	72.2
성악	10	11.1
작곡	6	6.7
현악기	5	5.6
기타 음악관련학과	4	4.4
합계	90	100

위 <표1>에 의하면 피아노 학원 교사의 전공은 피아노가 7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성악이 11.1%, 작곡이 6.7%, 현악기가 5.6%, 기타 음악관련학과가 4.4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의 학원교사들이 피아노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들은 피아노를 전공한 교사들에 의해 전문적인 피아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교사의 역량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학원 수강인원 중 미취학 아동 수

현재 학원의 수강인원 중에서 미취학 아동의 비율을 확인하기위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2>과 같다.

<표2> 학원 수강인원 중 미취학 아동의 비율(%)

구분	명	%
10%이상	55	61.1
20%이상	20	22.2
30%이상	10	11.1

40%이상	5	5.6
합계	90	100

위의 <표2>를 보면 학원의 수강인원 중에서 미취학 아동들의 비율은 수강인원의 10%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가 61.1%로 나타났으며, 수강인원의 20% 이상이 22.2%, 30% 이상이 11.1%, 40% 이상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음악학원 수강인원 중에서 미취학의 아동 수는 10% 이상으로 인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 아동에게 피아노 조기음악교육을 시킴으로써 감성계발을 촉진시키려는 학부모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3>과 같다.

<표3>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

구분	명	%
보통이다	10	11.1
중요하다	35	38.9
매우 중요하다	45	50
합계	90	100

위의 <표3>을 보면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에서 ‘매우 중요하다’가 50%로 절반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요하다’가 38.9%, 보통이다가 11.1% 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에 대해 긍정적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피아노를 배우기에 적절한 시기

피아노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부터 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피아노를 배우기에 적절한 시기

구분	명	%
만3세	6	6.7
만4세	25	27.8
만5세	40	44.4
만6세	15	16.7
취학 후	4	4.4
합계	90	100

위의 <표4>를 보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피아노 배우기 적당한 시기는 만5세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4세가 27.8%, 만6세가 16.7%, 만3세가 6.7%, 취학 후가 4.4%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에 대해 절반 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피아노를 배우기에 만5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시간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학습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5>과 같다.

<표5>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시간

구분	명	%
10~15분	5	5.6
15~20분	30	33.3
20~30분	40	44.4
30~40분	15	16.7
합계	90	100

위의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분이 44.4%로 가장 높고, 15~20분이 33.3%, 30~40분이 1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교사들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가장 적절한 피아노 학습시간이 20~30분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6) 피아노 교육 시 먼저 하는 교육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교육 시, 가장 먼저 하는 교육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피아노 교육 시 먼저 하는 교육

구분	명	%
음의 위치	9	10
이론	6	6.7
리듬	14	15.5
계이름	18	20
피아노건반의 이해	43	47.8
합계	90	100

위의 <표6>를 보면 피아노 건반의 이해가 47.8%로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계이름, 리듬, 음의 위치, 이론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우선 피아노를 치기 전 아동들은 피아노건반의 이해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피아노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분석은 <표7>와 같다.

<표7> 피아노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

구분	명	%
자세	18	20
이론	4	4.5
리듬	31	34.4
계이름	20	22.2
피아노건반의 이해	17	18.9
합계	90	100

위의 <표7>를 보면 피아노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요소는 34.4%로 리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이름이 22.2%, 자세가 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아노 교육 시 가장 먼저하는 교육과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피아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리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리듬교육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교육을 하면서 리듬교육을 주 몇 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분석은 <표8>과 같다.

<표8> 리듬교육

구분	명	%
주1회	32	35.5
주2~3회	15	16.7
주4회	6	6.7
매일한다	37	41.1
합계	90	100

위의 <표8>을 살펴보면 피아노를 교육하면서 리듬교육을 매일한다는 답변이 41.1% 높게 나타났으며, 주1회가 35.5%로 나타났다.

리듬교육을 매일한다는 답변이 제일 높게 나타났지만 그 다음 주1회, 주2~3회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에서 있어서 리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음률교육과 함께 리듬교육도 매일 필요하다.

8-1) 리듬교육방법

피아노 교육 시, 리듬교육을 매일한다 와 주1회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은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리듬교육 방법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표8-1>과 같다.

<표8-1> 리듬교육방법

구분	명	%
손뼉치기	41	45.6
언어	36	40
발 구르기	2	2.2
타악기사용	9	10
기타	2	2.2
합계	90	100

위의 <표8-1>를 볼 때 리듬교육의 방법은 손뼉치기가 45.6%, 언어로 리듬교육을 하는 답변이 40%, 타악기를 사용하거나 발 구르기 순으로 나타났다.

리듬지도는 아동들에게 쉽게 접하는 방법으로 손뼉치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아동들의 활동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온몸의 신체적인 움직임과 여러 악기 등을 사용한 리듬교육의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9)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표9>과 같다.

<표9>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명	%
이해력부족	12	13.4
흥미유발	39	43.3
테크닉지도	20	22.2
인내심부족	19	21.1
합계	90	100

위의 <표8>을 보면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흥미유발이 43.3%로 제일 높고, 테크닉지도가 22.2%, 인내심부족이 21.1%, 이해력부족이 13.4%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아동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미취학 아동들의 동기유발방법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동기유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10>와 같다.

<표10> 미취학 아동들의 동기유발방법

구분	명	%
노래 부르기	22	24.4
손뼉치기	16	17.8
게임하기	22	24.4
물질적 강화(사탕, 스티커 등)	25	27.8
없다	5	5.6
합계	90	100

위의 <표10>를 보면 미취학 아동들의 동기유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질적 강화가 27.8%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노래 부르기, 게임하기가 24.4%, 손뼉치기가 17.8%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동기유발을 위한 음악 교구의 사용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발적인 동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11) 미취학 아동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적절성

학원에서 미취학 아동들이 피아노학습에 사용하는 교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표11>과 같다.

<표11> 미취학 아동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적절성

구분	명	%
전혀 적절하지 않다	2	2.2
적절하지 않다	7	7.8
보통이다	41	45.6
적절하다	30	33.3
매우 적절하다	10	11.1
합계	90	100

위의 <표11>를 보면 현재 미취학 아동들에게 사용하는 교재가 보통이라는 답변이 45.6%, 적절하다가 33.3%, 매우 적절하다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취학 아동들이 피아노학습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아동들에게 적절한 지에 대한 답변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를 합쳐 44.4%로 나타났다. 교재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아동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11-1) 적절한 교재사용

현재 미취학 아동들에게 사용하는 교재가 적절하다는 답변에 어떤 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11-1>과 같다.

<표11-1> 적절한 교재사용

구분	명	%
바이엘	20	50
베스틴	4	10
어드벤처	12	30
알프레드	1	2.5
기타	3	7.5
합계	40	100

위의 <표11-1>를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재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 위와 바이엘이 50%, 어드벤처가 30%로 나타났다. 바이엘은 시각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단순한 화성을 사용한 교재이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단계와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시각적이고 아동들이 쉽고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이다.

12)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교사자질, 부모역할의 중요성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자질과 부모의 역할이 얼마 만큼 중요한 지에 대한 답변은 <표12> 같다.

<표12>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교사자질, 부모역할의 중요성

구분	명	%
매우 중요하지 않다	7	7.8
중요하다	33	36.7
매우 중요하다	50	55.5
합계	90	100

위의 <표12>를 보면 교사자질과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가 55.5% 제일 높고, 중요하다가 36.7%로 나타났다. 교사의 자질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교사들도 7.8%로 나타났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사의 자질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더불어 아동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아동들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자세교육 지도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교육 시 자세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표

13>과 같다.

<표13> 자세교육 지도

구분	명	%
가끔하고있다	43	47.8
지속적으로 한다	47	52.2
합계	90	100

위의 <표13>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한다가 52.2%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가끔하고있다 라는 답변도 47.8%로 높게 나타났다. 피아노 교육 시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들이 올바른 자세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사가 옆에서 주시하여 지도를 해야 한다.

14) 시창, 청음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을 있어서 시창과 청음을 주 몇 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14>과 같다.

<표14> 시창, 청음

구분	명	%
전혀하지않는다	40	44.4
주1회	35	38.9
주2~3회	8	8.9
주4회	2	2.2
매일한다	5	5.6
합계	90	100

위의 <표14>를 살펴보면 아동들에게 시창, 청음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답변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1회가 38.9%, 주2~4회는 11.1%, 매일한다에는 5.6%

로 나타났다.

시창과 청음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다. 시창을 통해 음높이를 알고, 청음을 통해 정확한 음을 기억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취학 아동기의 시기에는 청각각이 뚜렷하게 발달하므로,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아동들의 수준에 맞게 시창과 청음교육을 필요하다.

15) 감상교육

미취학 아동들에게 아동들이 학습하고 있는 곡을 감상을 권해보거나 감상교육을 주 몇 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표15>와 같다.

<표15> 감상교육

구분	명	%
전혀하지않는다	36	40
주1회	44	48.9
주2~3회	7	7.8
매일	3	3.3
합계	90	100

위의 <표15>를 보면 감상교육을 주1회가 48.9%로 가장 높고, 전혀하지 않는다 40%로 나타났다. 위 <표15>의 결과에 따라 감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은 듣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므로 무엇보다도 피아노 교육 시에 아동들에게 감상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5-1) 감상곡

미취학 아동들에게 감상을 하고 있는 곡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15-1>과 같다.

<표15-1> 감상곡

구분	명	%
동요	10	18.5
관현악곡	14	26
독주곡	16	29.6
합창곡	9	16.7
기타	5	9.2
합계	54	100

위의 <표15-1>를 통해 감상을 하고 있는 곡에 대해 보면 독주곡이 29.6%, 관현악곡이 26%, 동요가 18.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상을 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 감상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6) 피아노 교육을 통해 교육적 결과

미취학 아동이 피아노를 통해 가장 교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은 <표16>과 같다.

<표16> 피아노 교육을 통해 교육적 결과

구분	명	%
흥미와 자신감	30	33.3
연주의 테크닉	5	5.6
지능계발	16	17.8
정서의 함양	39	43.3
합계	90	100

위의 <표16>를 살펴보면 피아노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결과로서 정서의

함양이 43.3%로 제일 높고, 흥미와 자신감이 33.3%, 지능개발이 17.8%, 연주의 테크닉이 5.6%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미취학 아동들이 피아노 교육을 통해 정서적 함양을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취학 아동들은 피아노교육을 통해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3. 연구결과 요약

피아노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교육하는 교사들의 전공에 대해 피아노 전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하여 미취학 아동들은 비전공자 교사보다는 피아노 전공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음악학원에서 미취학 아동들은 수강인원 중에서 10%이상이라고 응답한 수가 61.1%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파악한 결과 교사들은 ‘매우 중요하다’가 절반 이상 나타났으며, 긍정적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취학 아동들이 피아노를 배우기 적절한 시기는 ‘만5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피아노 학습시간에 대한 질문은 한 결과 ‘20~30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교육 시 무엇을 먼저 교육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먼저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건반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에 대해 피아노 교육 시 먼저하는 교육과 달리 ‘리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리듬교육을 ‘매일한다’, ‘주1~3회’하고 있었으며, 리듬방법으로는 ‘손뼉치기’와 ‘언어’를 통해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를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유발방법으로 ‘물질적 강화(사탕, 스티커 등)’로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사용하는 교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에 ‘보통이다’와 ‘적절하다’

그리고 ‘매우 적절하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교재로는 ‘바이엘’과 ‘어드벤처’라고 하였다.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자질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에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자질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교육에 대한 응답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는 반면에 가끔씩 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 시에 시창, 청음 교육에 대한 응답에 전혀하고 있지 않거나 ‘주1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미취학 아동들이 학습하는 곡이나 감상교육에 대해 ‘주1회’와 ‘전혀하지않는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감상곡에 대한 질문에 ‘독주곡’이나 관현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은 듣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감상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아동들에 맞는 감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취학 아동들이 피아노 교육을 통해 가장 교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로서 ‘정서의 함양’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피아노를 통해 미취학 아동들이 정서함양을 도모하여 전인교육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설문 결과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교육 시 자세교육과 시창, 청음, 감상교육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즐겁게 놀이를 한다는 교육으로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모든 교육에서 필요한 자세교육과 피아노 교육 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리듬교육,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창, 청음, 감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IV. 피아노 조기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법

앞 장의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피아노 조기교육에 필요한 자세, 리듬, 시창, 청음 그리고 감상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이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세

본 연구의 설문 <13번 문항>에서 자세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 분석한 결과, 자세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는 반면에 가끔씩 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학습함에 있어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동들에게 항상 인식시켜주며 올바른 자세로 피아노 교육을 하기 위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교사의 시범을 통해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1) 앉는 자세

무엇을 하든지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학습하는 것이 학습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연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아노는 단순히 손가락만으로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근육과 신경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아노 의자는 자연스런 연주를 위하여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의자의 높낮이는 양팔을 건반위에 놓았을 때 수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의자의 높낮이를 조정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 업라이트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업라이트의 의자는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제한 때문에 아동들의 신체에 맞도록 방석이나 책 등으로 높낮이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의자의 높이를 편하게 조정할 다음에는 의자와 피아노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팔과 건반과의 거리가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팔을 뻗어 피아노 뚜껑에 닿는지 확

인한다. 피아노에 너무 바짝 붙어 앉게 되면 팔꿈치와 상체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에 앞에 앉을 때에는 정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비껴 앉아야 한다.

이때 두 발은 안정감을 위하여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발 받침대나 방석 등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아동들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방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자세를 잡은 후, 연주 자세에서는 하늘에서 머리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앉은키를 최대한 크게 하여 악보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지도한다. 그 밖의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등의 부위는 필요 없는 힘을 빼서 최대한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러한 자세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동들의 자세교정을 위한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피아노 학원에서는 자세교정 보다는 악보 보는 것과 연주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피아노 교육을 오랫동안 받은 아동들 가운데서 자세가 불완전한 아동들의 수가 적지 않다.

바르지 않은 자세로 연주를 계속하게 되면 손가락, 손, 팔, 어깨 등이 경직되기 쉽고, 바르지 않은 자세가 몸에 배어 교정하기가 힘들어진다. 미취학 아동들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세에 따라 체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른 자세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항상 아동들의 옆에서 바른 자세의 시범을 보여주어 아동 스스로가 바른 자세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손 모양과 손목의 자세

올바른 자세와 함께 올바른 손 모양, 손목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19세기 말까지는 손가락은 직각으로 구부리고 손등과 팔은 경직된 자세로 손끝으로만 건반을 누르도록 지도하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근대에는 손 모양을 자연스러운 둥근 모양을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다.¹⁵⁾

손 모양을 지도할 때는 오른손과 왼손의 모양을 따로 지도한다. 먼저 오른손을 지도한 후 왼손을 지도한다. 양 손이 바른 모양을 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양손을 동시에 연습한다.

(1) 공을 잡듯이

아동들에게 손으로 공을 잡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만들고, 어떻게 공을 잡을

15) 송정이, 전계서, p.73.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 단계로 공을 잡을 때의 손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여 피아노 건반위에 올려보게 한다.

<그림1> 공을 잡듯이 손 모양



(2) 꽃이 피어나듯

아동들에게 주먹을 쥐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꽃 봉우리가 서서히 피어나는 것처럼 상상하게 한다. 오른손을 먼저 주먹을 쥐고 건반위로 올려놓는다. 꽃이 피어나 듯 손가락을 천천히 펴서 손 모양을 둥글게 만들게 한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은 건반에 닿지만 손목은 살짝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왼손으로도 해보고 양손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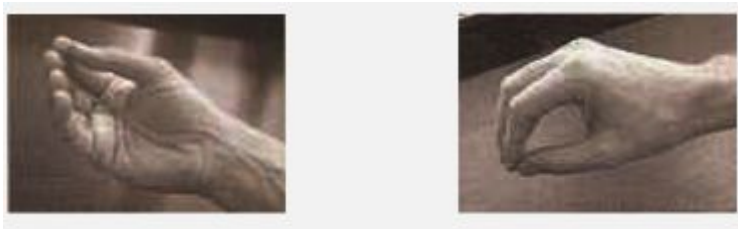
(3) 컵 모양의 손

아동들의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게 한다. 무릎 위에 있는 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건반 위로 올려놓게 한다.

(4) 컵 모양으로 손 오므리기

먼저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다. 그리고 다섯 손가락 끝을 모두 모으게 한다. 손 모양이 컵처럼 동그란 모양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손을 뒤집어 손등을 위로 보이게 한다. 아래의 각 음계를 연주할 때 3번째 손가락 뒤에 엄지를 두고 옆으로 세워 연주하게 된다.

<그림2> 컵 모양으로 손 오므리기



손 모양 뿐만 아니라 손목의 자세도 중요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피아노를 치는 도중에 손목이 아래로 쳐지지 않게 지도해야 한다. 손목이 아래로 내려가면 손목에 힘이 전달되지 못하고 집중되지 못하므로 항상 교사는 아동들의 손목이 아래로 쳐지지 않게 잡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할 때 손바닥이 너무 흰 건반에 가까이 대고 연주를 하면 손등이 내려앉아 패이기 때문에 손등이 다소 올라오는 듯 아치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손목과 손등은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 연주를 하게 하고 손목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손목은 항상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손목의 움직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손목을 위 아래로 움직일 때, 정확하고 확실한 소리를 내기 위하여 팔의 무게를 이용해야 한다. 슬러(이음줄)로 이어진 두 개의 음을 칠 때 처음에는 아래로 두 번째 음은 팔목을 움직이면서 팔목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 손과 팔목의 움직임이 너무 과장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손목을 좌우로 움직일 때, 손가락과 팔의 무게를 건반 위에 확실히 고정시키는데 꼭 필요하다. 아르페지오를 연속적으로 칠 때,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자리를 바꿀 때에 필요하게 된다.

셋째, 손목을 회전할 때 트릴 또는 왼손의 알베르티 베이스(Alberti bass)나 옥타브 트레몰로(Octave tremolo)를 연주할 때 필요하다. 팔꿈치의 힘을 빼고 앞팔(팔꿈치로부터 손목까지)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손목을 돌려준다. 팔꿈치와 손목, 어깨 등에 힘을 빼지 않고 피아노를 치게 되면 음이 고르지 않게 눌러진다. 빠른 템포의 곡을 연주하는데 힘들게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약 음들을 칠 때에는 쉽게 손을 옮길 수 있어 편리하며 코드와 스타카토를 칠 때에도 손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들에게 바른 자세와 손의 위치, 손의 모양에 대해 알려주며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체적 발달이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일정한 형태만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아동들 개개인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손 모양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너무 무리를 주지 않게 연습을 하게하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보완시켜야 할 것이다.

16) Idid., pp.74-75.

2. 리듬

본 연구의 설문 <7번 문항>에서 피아노 교육 시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를 조사, 분석한 결과 리듬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8번 문항>의 응답으로 리듬교육은 매일하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방법으로 손뼉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들은 활동적이므로 신체적 움직임이나 놀이를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리듬은 그리스어의 동사인 'rhein'에서 파생된 것으로 '흐름'이라는 뜻이며 음의 연속적인 동작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시간의 질서로 정의할 수 있다.¹⁷⁾

음악은 리듬, 선율, 화성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리듬은 화성이나 선율 없이 리듬만으로도 음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리듬은 사람의 심장 박동, 호흡, 계절의 변화와 같은 우리 주위 모든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다이, 오르프는 음악교육의 시작을 리듬으로 보고 있다. 코다이는 언어를 통한 리듬 지도와 음가음절을 통해 리듬을 지도하였다. 오르프는 몸이 하나의 악기라고 하여 신체 활동으로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악기인 동시에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리듬의 시작을 말하기로 보고 손뼉치기, 무릎치기 등으로 말 리듬을 표현하고 더 발전하여 악기로 리듬을 연주하는 연속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이처럼 리듬교육은 신체표현을 통하여 쉽게 학습할 수 있다. 리듬은 특히 신체적 동작을 많이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쉽게 접근하여 창의성을 계발하는 음악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리듬을 아동들에게 '머리가' 아닌 '감각'으로 익히게 해야 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몸으로 느끼는 가운데 다양한 리듬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피아노 지도에 있어서 리듬교육은 음정이나 다른 학습보다는 먼저 학습해야 하며 신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도하는 것이 좋다.

어릴 때부터 리듬 개념을 쉽게 인식시켜 리듬 감각을 가지게 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음악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취학 아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리듬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며 모든 감각의 발달이 빠르게 전개되는 시기이므로 리듬 학습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리듬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리듬교육을 할 때에는 먼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순서로 학습해야 한다.

또한 리듬교육을 할 때 아동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몸으로 행해지는 놀이가


17) Machlis, Joseph, 신금선 역, 「음악의 즐거움(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p.32.

필요하다. 프뢰벨(R. W. A. Frobel)은 놀이를 유년 시절 생명인 떡잎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놀이는 학생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활동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이나 대상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자연의 발로이기도하다. 그러므로 놀이는 세상에 즐거움, 자유, 만족, 휴식, 평화를 준다.’ 라고 하였다.¹⁸⁾ 놀이는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여러 방법을 경험하고 탐구하여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전 조작기에 속하는 미취학 아동들의 리듬발달을 살펴보면 소리의 셈여림, 음높이, 음길이 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가락의 흐름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적합한 리듬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사는 효율적인 리듬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감각을 토대로 한 다양하고 흥미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리듬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리듬교육은 상상력과 창조력이 무궁무진한 아동들의 기본적인 교육으로서 피아노 조기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부여한다. 리듬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안을 제시해 보았다.

18) 정진, 성원경, 「유아 놀이와 게임 활동의 실제」, 학지사, 1994, p.10.

리듬 지도(1차시)		
학습목표	신체활동을 통해 리듬의 개념을 익힐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도입	손뼉치기, 발구르기, 걷기 등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다. 주위에 일정한 박을 찾고, 느끼도록 한다.	
전개	<p>① 리듬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한다.</p> <p>② 손뼉치기, 발구르기, 걷기 등 신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리듬을 익히도록 한다.</p>  <p>③ 교사와 아동의 응·답 방식으로 리듬을 익히도록 한다.</p>	
정리	손뼉치기, 발구르기, 걷기 등의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리듬 지도(2차시)														
학습목표	그림을 통해 음의 길이와 이해하고 셀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도입	신체를 통해 다양한 리듬을 표현하도록 한다.													
전개	<p>① 구음과 함께 음의 길이를 쉽게 음표를 익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음표(동그라미네) - 온-음-표-넷 ♪ 점2분음표(하얀 머리에 점이 달렸네) - 점-2-분 ♪ 2분음표(머리가 하얗네) - 2-분 ♪ 4분음표(머리가 까맣네) - 4 <p>② 그림을 보여주며 음의 길이를 익히도록 한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온음표)</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 □ □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 ● ● ●</td> </tr> <tr> <td>♪ (점2분 음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 □ □</td> <td style="text-align: center;">● ● ●</td> </tr> <tr> <td>♪ (2분 음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4분 음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③ 간단한 동요를 정간보를 통해 음의 길이를 이해하도록 한다.</p>	○ (온음표)	□ □ □ □ □	● ● ● ● ●	♪ (점2분 음표)	□ □ □	● ● ●	♪ (2분 음표)	□ □	● ●	♪ (4분 음표)	□	●	그림자료
○ (온음표)	□ □ □ □ □	● ● ● ● ●												
♪ (점2분 음표)	□ □ □	● ● ●												
♪ (2분 음표)	□ □	● ●												
♪ (4분 음표)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나</td><td>비</td><td>야</td><td>-</td><td>나</td><td>비</td><td>야</td><td>-</td> </tr> <tr> <td>이</td><td>리</td><td>날</td><td>아</td><td>오</td><td>너</td><td>라</td><td>-</td> </tr> </table> <p>④ 가사 뒤에 음표를 붙이고 가사에 맞는 음표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나	비	야	-	나	비	야	-	이	리	날	아	오	너	라	-	♪	♪	♪	♪	♪	♪	♪	♪	♪	♪	♪	♪	♪	♪	
나	비	야	-	나	비	야	-																									
이	리	날	아	오	너	라	-																									
♪	♪	♪	♪	♪	♪	♪																										
♪	♪	♪	♪	♪	♪	♪																										
정리	<p>음표를 익히며 음의 길이와 이름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그림을 보여주며 그림에 맞는 음표를 찾을 수 있는 평가해본다.</p>	그림자료																														

리듬 지도(3차시)		
학습목표	2박자, 3박자, 4박자의 셈여림을 이해한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도입	그림을 보여주며 신체를 통해 리듬을 표현하도록 한다.	그림자료
전개	<p>① 4분의 2박자의 셈여림은 ◎ o (강 약)을 설명하며, 강박에는 손뼉, 약박에는 짝 손뼉을 치게 한다.</p> <p>② 4분의 3박자 셈여림은 ◎ o o(강 약 약)을 설명하며, 강박에는 무릎, 손뼉, 손뼉을 치게 한다. (또는 무릎, 짝 손뼉, 짝 손뼉을 치게 한다.)</p> <p>③ 4분의 4박자 셈여림은 ◎ o ○ o(강 약 중강 약)을 설명하며 무릎, 짝 손뼉, 내 손뼉, 짝 손뼉을 치게 한다.</p> <p>④ 교사가 지정한 셈여림을 짝과 하도록 하고 게임 활동으로 할 수 있다.</p>	
정리	교사가 지정하는 박자의 셈여림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리듬 지도(4차시)		
학습목표	다양한 놀이를 통해 리듬을 익힐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도입	아동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한다.	
전개	<p>다양한 놀이를 설명하고 놀이를 통해 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p> <p>① 리듬낚시놀이 : 다양한 리듬카드를 제시하여 교사가 표현한 리듬에 해당하는 리듬카드를 낚는 놀이.</p> <p>② 리듬전달놀이 : 교사가 맨 앞사람에 리듬카드를 보여주면 옆 사람에게 정확하게 리듬을 전달한다. 맨 마지막에 리듬을 전달받은 사람은 리듬카드를 찾는다.</p> <p>③ 공놀이 : 교사가 리듬을 지정하면 아동들은 공을 이용하여 주고받거나 튕겨 리듬을 표현하도록 한다.</p> <p>④ 연주놀이 : 리듬을 듣고 타악기로 연주하도록 한다.</p>	<p>리듬카드</p> <p>리듬카드</p> <p>공</p> <p>타악기</p>
정리	지정한 리듬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리듬 지도(5차시)														
학습목표	신체표현과 놀이를 통해 쉽게 노래를 익힐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도입	‘똥보 아저씨’ 노래를 들려준다.	음악CD												
전개	<p>① ‘똥보 아저씨’악보를 보여주며 4분의 4박자라고 설명한다. 셈여림 ◎ ○ ○ ○(강 약 중강 약)을 설명하며 무릎, 짝 손뼉, 내 손뼉, 짝 손뼉을 치게 한다.</p> <p><악보1> 똥보 아저씨</p> <p style="text-align: center;">똥보 아저씨</p> <p style="text-align: center;">플립 동요마을 이요섭 작사 이요섭 작곡</p> <p>똥 보 아 저 씨 집 - 에 - 는 일 곱 명 의 아 들 이 있 었 는 데 요 그 중 에 하 나 키 가 크 고 요 나 머 지 는 작 대 요 오 른 손 - 을 려 요 왼 - 손 - 을 려 요 고 개 를 흔 들 어 요 얼 덩 이 를 흔 들 어 요</p> <p>② 정간보를 보여주며 리듬을 익히도록 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똥</td><td>보</td><td>아</td><td>저</td><td>씨</td><td>-</td><td>집</td><td>-</td><td>에</td><td>-</td><td>는</td><td>-</td> </tr> </table>	똥	보	아	저	씨	-	집	-	에	-	는	-	악보
똥	보	아	저	씨	-	집	-	에	-	는	-			

	<p>③ 제재곡에 나오는 리듬을 신체를 이용하여 익힌다. 노래를 부르며 ♪ 리듬에는 짱총뛰고 ♪ 리듬에는 걸으며 신체를 통해 리듬을 익힌다.</p> <p>④ ‘리듬전달놀이’ 게임을 한다. 교사는 맨 앞의 학생의 등에 제재곡의 리듬을 친다. 옆 사람에게 정확한 리듬을 전달하여 맨 마지막에 리듬을 전달받은 학생과 처음과 맞는지 게임을 한다.</p> <p>⑤ 공놀이를 통해 제재곡의 리듬을 익힌다. ◎(강)에는 공을 바닥에 튀겨서 받는다. ○(약)에는 받은 공을 가지고 있다. ○(중강)에는 공을 머리에 갖다 놓는다. ○(약)에는 공을 머리 위로 올린다.</p>	공
정리	<p>신체를 이용하여 노래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재곡의 셈여림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p>	

3. 시창, 청음

본 연구의 설문 <14번 문항>에서 시창, 청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 분석한 결과, 시창, 청음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확한 음을 알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에서 필요한 시창, 청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시창과 청음

시창이란 주어진 선율에 따라 초견으로 바르게 악보를 읽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고정도법이든지 이동도법이든지 상관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¹⁹⁾

시창은 음악적 표현을 잘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음정과 리듬을 바르게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직접 입을 통해 불러보면서 음악적 표현 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고 음악적 기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주 했을 때 음악적 표현을 잘 할 수 있다.

또한 시창을 학습하면 아동들이 리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때도 음의 높낮이를 느낌으로 음정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시창은 리듬에 대한 개념 뿐 아니라 음의 높이를 동시에 느끼게 해줌으로써 음정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노래를 하면서 어디서 숨을 쉬는지 파악할 수 있어 프레이징 감각을 키울 수도 있다.²⁰⁾

이러한 시창을 하기 위해서는 리듬과 음높이의 훈련이 학습되어야 한다. 아동들은 악보를 보고 어떤 리듬과 가락인지 잘 모르며 노래는 부르며 피아노를 쳐주면 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음을 듣지 않고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는 아동들은 극소수라 할 수 있다.

피아노 교육이 주입식 교육으로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악보만 보며 소리를 낸다. 기계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다른 음악교육들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시창이 얼마나 연주의 능력을 길러주는지 잊고 있다.

시창을 통해 음을 미리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입식교육으로 실기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음은 시창과 마찬가지로 피아노 교육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19) 이은주, “유·아동기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방법”,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원논문, 2001, p.51.

20) 안혜리,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 4~7세 아동을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51.

음악교육은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음악은 소리를 들으며 귀로 전달된다. 음을 정확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음악을 표현할 수 있고, 정확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음의 소리를 듣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청음은 음악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음교육을 통해 음악적인 집중력, 기억력을 계발 시켜주고 악보와 음과 실제 악기를 통해 소리를 하나의 음 감각으로 통합시켜주고 음악의 부분들과 그것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해서 그 음악을 다시 악기에 재현 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음은 악보를 정확하게 읽고 귀로 듣고 들은 것을 연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독보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²¹⁾

아동들은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귀로 소리를 들어 모방을 하여 말을 배우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음악도 소리를 듣고 모방하여 익힌 후 이론적인 학습, 실기로 진행시켜야 한다.

청음 훈련은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서 2단계인 전조작인에 해당하는 아동들부터 시작하는 좋다. 아동들은 청각과 청각에 대한 반응이 뚜렷하게 발달하여 소리의 셈여림과 음높이,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청음 훈련은 좋은 연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많이 듣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연주곡을 잘 듣고 소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청음지도를 통하여 시창, 청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음악을 읽고 이해하는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조기음악교육을 할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신체활동을 이용하여 쉽게 다가가고 흥미를 이끌어 나가는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창, 청음 교육의 지도안을 제시해보았다.

21) 에듀클래식 교육부, “청음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에듀클래식, 2007, p.66.

시창, 청음 지도(1차시)		
학습목표	시창, 청음교육을 하도록 한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도입	눈으로 피아노 건반을 익히고 건반을 눌러본다.	피아노
전개	<p>① 교사가 먼저 건반을 누르며 다장조 음계를 부르며 아동들은 따라서 부르게 한다.</p> <p>② 다장조의 음계를 정확하게 듣고 계이름 막대의 색깔을 찾도록 한다. 도(빨강), 레(주황), 미(노랑), 파(초록), 솔(파랑), 라(보라), 시(검정)로 된 계이름 막대를 이용하여 교사가 누른 계이름의 막대를 찾도록 한다.</p> <p>③ 도레, 레미, 미파, 파솔, 라시, 시도,(2도, 3도씩 늘린다)여러번 반복하여 듣는다. 소리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계이름 막대의 색으로 표현하도록 한다.</p> <p>④ 다장조 음계를 듣고 한사람씩 일어나 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p> <p>⑤ 옥타브 다장조 음계를 듣고 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p>	계이름 막대
정리	교사가 누른 음을 정확히 듣고 맞는 음인지 틀린 음인지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시창, 청음 지도(2차시)		
학습목표	신체를 이용하여 시창, 청음교육을 하도록 한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도입	다장조 음을 정확히 듣고 교사를 따라 부른다.	피아노
전개	<p>① 아동들에게 각자 계명을 정해주고, 교사가 누르면 음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각자의 음을 적용 시킨다.</p> <p>② ‘도레미노래’ 곡을 정하여 교사가 연주하면 잘 듣는다. <악보2>도레미 노래</p> <p style="text-align: center;">도레미 노래</p> <p>③ 해당되는 음의 아동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한다.</p>	

	④ 제재곡을 계명창으로 부르게 하여 시창 수업으로 연계하고 수업을 놀이화 시켜 게임 활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정리	교사가 누른 음을 정확히 듣고 맞는 음인지 틀린 음인지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감상

본 연구의 설문 <15번 문항>에서 감상교육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 감상교육을 주1회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나 감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 감상곡으로는 독주곡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감상곡을 선택할 때는 아동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의 곡을 선정하여 감상 후에 다양한 표현방법을 제시하여 좀 더 효율적인 감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음악 감상 교육의 목적은 음악 감상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원만한 인격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아동기에는 오감 중에서 청각의 발달 가장 뛰어나다. 그 이유는 음을 듣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음악이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상은 음악적 행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음악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음악이 있는 곳에서는 감상이 우선적,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미취학의 아동들은 ‘음악적 감각 학습기’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심미적 음악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음악적 감각 학습기’는 일생 중에서 소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로서, 소리에 대해 호기심이 왕성하게 표출되고 스스로 음악을 학습하려는 자세가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심장박동소리, 주변소리를 들으면 생활한다. 우선 처음에 감상을 할 때 눈을 감고 들리는 소리를 감상해 본다. 또 아동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소리, 숨소리, 시계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자동차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들어 보도록 해야 한다.

아동들에게 적합한 음악은 빠른 곡과 느린 곡,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의 대비가 분명하고 명확한 박자와 리듬, 강약을 갖는 곡이 좋다. 나이가 어릴수록 곡은 짧고 묘사적이며 이야기 있는 표제음악을 들려주거나, 친숙한 이야기가 있고 생동감 있는 곡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동요에서부터 합창곡, 표제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어 풍부한 상상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상을 할 때는 음악을 듣고 사색하거나 악곡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차원보다는 아동들이 즐겁게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게 기초과정부터 접근하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듣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동들은 오랫동안 주의력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음악을 감상할 경우 끝까지 듣기가 힘들

고 집중하기가 힘들다. 억지로 앉혀서 듣게 하면 아동들은 쉽게 지루해 하고 힘들며, 주위가 산만해진다. 그러므로 흥미로운 방법으로 음악의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되 아동들의 눈높이와 사고에 맞는 방법을 생각하여 아동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들은 시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귀로만 듣기보다는 감상을 할 때에는 그림을 함께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감상을 하고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자가 음악 감상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감상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하는 방법 또한 효과적인 것이다.

다음과 같이 감상 후에 할 수 있는 음악 감상 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그림 그리기

음악을 들려주고 곡의 분위기를 아동들의 마음껏 표현하도록 해 본다. 음악을 들으며 선을 긋거나 그림을 그려 자유롭게 곡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아동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므로 곡을 감상하면서 상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해 본다. 그림이 어려우면 선을 긋거나 그리고 싶은 모양을 그려 곡의 분위기를 느끼도록 한다.

미술 심리에서 보면 그림을 통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등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아동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의 목적은 아니지만 감상을 하면서 아동들이 곡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림을 나타내는 방법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2) 신체로 표현하기

음악을 듣고 곡의 박자나 높낮이, 악상, 프레이즈 등을 신체로 표현하도록 해 본다.

손을 가슴에 대고 곡의 박에 맞춰서 심장을 뛰는 것처럼 해보고 높낮이는 손을 위아래로 벌려 음악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도록 한다. 악상은 손을 양 옆으로 벌려서 음악의 크고 작음을 따라한다. 그리고 프레이즈를 손가락으로 허공에 대고 그리게 해 본다.

몸 전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으로 걷기, 뛰기, 춤추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음악이 주는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해 본다.

3) 언어로 표현하기

아동들은 표현력, 창작력, 상상력이 뛰어나고 발달하므로 곡을 감상하면서 느끼고 생

각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도록 해 본다. 거대한 문장을 만들기 보다는 생각나는 단어를 적거나, 간단한 문장을 적어보거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바를 적어보고 발표해 본다.

또한 아동들의 상상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곡의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해 본다.

4) 리듬치기

곡의 모티브나, 간단한 기본 박을 손뼉치기, 발 구르기, 무릎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리듬을 느끼도록 해 본다. 피아노나 다른 악기 등을 통하여 곡의 리듬을 표현하도록 한다. 어려운 리듬이나 곡의 리듬을 전부 표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곡을 들으며 들었던 리듬을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해 본다.

감상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아동들이 능동적으로 음악을 직접 참여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귀로만 가만히 앉아 듣기보다는 직접 느끼고 표현하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머리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양한 감상표현을 이용하여 미취학 아동들에게 적합한 감상곡으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선택하여 지도방법을 제시하다.

감상 지도(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학습목표	음악을 감상하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즐기면서 상상력을 기른다.	상상력을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도입	음악을 감상하고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본다.	음악CD
전개	<p>① 음악을 듣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p> <p>② 동물의 사육제에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지, 14곡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한다.</p> <p>제1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곡 : 사자의 위엄이 절로 느껴지는 동물의 왕다운 위풍을 보이는 호화스런 행진곡</p> <p>제2곡 암탉과 수탉 : 클라리넷으로 암탉소리, 피아노의 높은 음으로 수탉의 소리</p> <p>제3곡 당나귀 : 평원에서 뛰노는 당나귀의 모습묘사</p> <p>제4곡 거북이 : 느리게 연주되는 두 대의 피아노와 현악기의 낮은 음은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묘사</p> <p>제5곡 코끼리 : 콘트라베이스의 무거운 음으로 커다란 코끼리를 묘사</p> <p>제6곡 캥거루 : 긴 발로 뒤통거리며 달려가는 캥거루의 모습을 피아노로 묘사</p> <p>제7곡 수족관 : 피아노는 물이 흔들리는 모양을, 플룻과 바이올린은 맑은 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정경을 묘사</p> <p>제8곡 노새 : 2대의 바이올린의 소리는 노새의 울음소리를 묘사</p> <p>제9곡 숲속의 빠꾸기 : 빠꾸기소리는 클라리넷의 하행하는 음의 진행으로 묘사, 2대의 피아노의 조용한 화음으로 숲 속의 정경과 분위기를 표현</p> <p>제10곡 새 : 플룻, 두 대의 피아노, 현악4부로 여러 종류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묘사</p> <p>제11곡 피아니스트 : 축제에 참가한 무능한 피아니스트 묘사</p>	

제12곡 화석 : 생상 작곡의 '죽음의 춤', 프랑스 민요와
 룩시니의 '세빌라의 이발사' 중 아리아의 교묘한 묘사
 제13곡 백조 : 첼로독주용으로 유명, 우아한 백조묘사
 제14곡 피날레 : 지금까지 나온 동물들이 등장하여 축
 제가 벌어진다.

③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동물의 소리에 맞는 그림을
 찾아보게 한다.

<그림3> 동물의 사육제

그림자료



	<p>④ 감상을 하면서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내어 보거나 움직임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게 한다.</p> <p>⑤ 음악을 감상하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게 한다. (음악의 느낌이나 동물의 움직임)</p>	
정리	<p>음악 감상 후 동물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신체를 통해 표현해본다.</p> <p>감상을 하면서 들었던 리듬을 신체로 표현하거나 타악기를 통해 표현해보며, 감상느낌을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본다.</p>	스케치북 타악기



V. 결론 및 제언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조기교육 중에서도 피아노 조기교육은 대중적이고 보편적,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피아노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됨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기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미취학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음악학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좀 더 효율적인 피아노 교육이 되도록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아동에게 피아노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은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피아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피아노 교육 시 미취학 아동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 물질적 강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아동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한 음악 교구의 사용은 저조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결과 피아노 조기음악교육 시, 아동의 흥미유발이 가장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먼저 아동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동기가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시도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피아노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상호 긴밀한 유기적관계가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동기유발이 이루어지고, 학습효과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시간은 20~30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들의 발달단계의 특성상 오래 앉아 있는 것에 매우 힘들어 하고 오래 집중하기에 어렵고 정서상태가 급변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시간에 아동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피아노 실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 등의 활동들도 접목하는 것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설문을 분석한 결과 감상과 시창, 청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아노 실기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피아노를 교육함에 있어서 피아노 실기 중심보다는 리듬, 시창, 청음, 감상 등의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들도 함께 교육함으

로써 아동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하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조기 교육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기술적인 테크닉 보다는 음악을 느끼고 다양한 음악을 접하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화 시켜 교육하며 아동들이 음악에 대한 감성적인 함양을 목표로 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설문결과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교육 시 자세교육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반면 가끔하고있다는 결과도 높게 나왔다. 모든 교육 시 자세는 중요하다. 피아노 교육에서도 중요하다. 역지로 지도하기보다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올바른 자세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리듬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리듬은 음악의 기초와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리듬을 매일 교육을 하는 교사들도 있는 반면 주1~3회 정도 교육하는 교사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듬은 지속적으로 매일 지도해야 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반복적이고 꾸준한 학습이 지속되었을 때, 교육효과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이 손뼉치기나 언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의 발달단계특성에 맞게 온몸을 이용하거나 타악기사용, 시각적으로 다양한 놀이와 방법을 모색하여 아동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더욱 효과적인 리듬교육이 될 것이다.

일곱째, 교사들은 미취학 아동들이 피아노 학습을 통해서 정서적 함양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아노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기르고 피아노 교육을 즐기며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연구결과를 통해 미취학 아동들이 피아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원에서는 테크닉과 주입식 교육에 얽매어 음악의 기초적인 음악학습에 많이 소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너무 진도에 연연해하고, 단순 기능 위주로 반복연습을 하여 아동들이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도하여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게 하며 다양한 방법과 놀이를 통해 음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음악적 활동을 병행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음악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하며 정서적,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길애경, 임미경, 「초등음악지도법」, 수문당, 1996.
- 류덕희, 「음악 교육학개론」, 서울 : 학문사, 1973.
- 성경희, 「유아들의 음악세계」, 세광출판사, 1987
- 송정미, 「피아노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1986.
- 스즈키, 「유아의 재능교육」, 장학출판사, 1981.
-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이화여자대학출판부, 2007.
- 유기섭, 「교육심리학」, 동문사, 1993.
- 유은석,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 학지사, 1992.
- 이관섭, 「유치원 교사를 위한 유아음악교육」, 양서원, 2002.
-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2.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정진, 성원경, 「유아 놀이와 게임 활동의 실제」, 학지사, 1994.
- Joseph Machlis, 신금선 역, 「음악의 즐거움(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 Mursell, J.L, 「음악적 성장을 위한 교육」, 세광출판사, 1987.
- Szonyi, Erzebert, 조흥기 역, 「코다이 음악교수법」, 다라출판사, 1994.

2. 학위논문

- 강성실, “조기 음악교육의 올바른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강유나, “인지발달 이론을 기초로 한 아동기 피아노 교수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강은미, “연령별 피아노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 및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박미연, “조기 피아노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부산지역중심으로”, 경성대 대학원, 2003.

- 안혜리, "피아노 조기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 4~7세 아동을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이경진,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 지도방법 연구 :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 2003.
- 이은주, "유·아동기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방법",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장나영,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 지도방법 : 취학 전 어린이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허은진, "아동기 조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 피아노 교육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홍혜정, "중학교 학생들의 독보력 실태와 신장방안", 한양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09.
- Barbara, L., "Music in Early Childhood", 「Washing, D.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73.

3. 정기간행물

- 에듀클래식 교육부, "청음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에듀클래식, 2007.
- 주영옥, "피아노교육이 모든 음악 기초적 단계가 되는가?", 음악교육, 1989.

피아노 조기교육의 실태를 통한 효율적 지도방법 연구
-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

현 루 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박 순 방

최근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육열이 과열되면서 조기교육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미취학 아동의 조기 음악교육 또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조기 음악교육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악기는 피아노로서 현재 우리나라 피아노 조기 교육은 대부분 음악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귀포, 제주시에 있는 음악학원을 중심으로 미취학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올바른 피아노 조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아동에게 피아노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은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피아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설문을 분석한 결과 감상과 시창, 청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아노 실기 교육 위주로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아노를 교육함에 있어서 피아노 실기 중심보다는 리듬, 시창, 청음, 감상 등의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들도 함께 교육함으로써 아동들이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하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교육에 있어서 리듬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리듬은 음

악의기초와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리듬을 매일 교육을 하는 교사들도 있는 반면 주1~3회 정도 교육하는 교사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듬은 지속적으로 매일 지도해야 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반복적이고 꾸준한 학습이 지속되었을 때, 교육효과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이 손뼉치기나 언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특성에 맞게 온몸을 이용하거나 시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아동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더욱 효과적인 리듬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음악적 발달을 고려하여 적합한 리듬방법을 모색하여 음악의 기본적인 리듬을 주입식이 아니라 신체적인 움직임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은 미취학 아동들이 피아노 학습을 통해서 정서적 함양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 볼 수 있다. 이러한 피아노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정서적인 함양을 통해 피아노 교육을 즐기며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미취학 아동들은 피아노 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에서 기초적인 음악학습에 많이 소홀하다고 할 수 있었으며 단순 기능 위주로 반복연습을 통해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아동에게 맞는 교육을 시도하며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악에 대한 바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음악적 활동을 병행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음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음악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하며 정서적,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Efficient Guidance Method through the Actual State of Early Education of Piano

- On Preschool Children -

Hyun, Roo Di,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Recently, in our country, as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is emphasized and education enthusiasm is overheated, interest of early education comes to rise gradually, and early music education of preschool children is being emphasized greatly. Musical instrument being used in early music education most is piano. Then, early education of piano of our country is being made in music institute for the most part now.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actual state as to how early music education through piano is being made through questionnaire on teachers who are guiding preschool children centering around music institutes at Seogooipo, Jeju-city and establishing right direction of early education of piano.

Conclusion to be based on question result is as follows:

First, it could be seen that teachers who are educating piano to preschool children are recognizing that piano education of this period is very important, as early music education through piano has very affirma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First, as the result to have analyzed question, it could be seen that appreciation, singing by viewing, and education listening to sound are not

made right and that education is made centering around practical education of piano. In educating piano, we will have to educate diversely, so that children may have zest and interest for music, by educating very important musical elements such as rhythm, singing by viewing, listening to sound, and appreciation etc. than centering around practical technique of piano.

Third, teachers are education by laying emphasis on rhythm most in education. Rhythm is important element to form the base of music. But,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teachers who educate rhythm everyday, whereas there are teachers who educate it over 1-3 times per 1 week. Rhythm should be guided continuously everyday. Especially, in case of preschool children, it can be seen that education effect is better, when repetitive and steady study continues.

In addition, teachers were executing education with clapping or language for the most part, and guiding children, so that they may study with interest by using whole body suitably for the feature of development stage of children or groping for diverse methods visually will be more effective rhythm education. So, teachers will have to grope for diverse methods to use bodily movement which is not cramming method, by groping for suitable rhythm method in consideration of musical development of children.

Fourth, it can be seen that teachers are educating, by recognizing that preschool children may obtain emotional cultivation through piano lesson.

Teachers will have to do endless study and guidance, so that they may form desirable character through this piano lesson, enjoy piano lesson through emotional cultivation and make music into life. It can be said that institute which is doing piano lesson for preschool children neglects basic music study much and that they are losing interest for piano through repeated practice centering around simple function.

Therefore, teachers should try education to be suitable for each child, make children contact diverse music, so that they may have interest, and will have make them contact music right.

In addition, teachers will have to execute education to carry out creative and integrated education and musical activity at the same time to preschool children who contact piano for the first time. Systematic education will have to be made continuously, so that teachers may arouse interest for music, develop musicality, and do emotional character formation and emotion cultivation.



“피아노 조기교육의 실태를 통한 효율적 지도방법 연구”

: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은 “피아노 조기교육의 실태를 통한 효율적 지도방법 연구 :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는 미취학 아동들의 효율적인 피아노 교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설문지에 응답하신 자료는 익명으로 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시된 문항에 따라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나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 중에서 알맞은 답이 없으신 경우 ‘기타’란에 직접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1. 선생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피아노 ②성 악 ③작 곡 ④관악기 ⑤현악기 ⑥기타 음악 관련학과

2. 학원의 수강인원 중 미취학 아동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10%이상 ②20%이상 ③30%이상 ④40%이상 ⑤50%이상

3.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통한 조기음악교육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하다 ⑤매우 중요하다

4.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몇 살부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만3세 ②만4세 ③만5세 ④만6세 ⑤취학후

5.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학습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10~15분 ②15~20분 ③20~30분 ④30분~40분 ⑤40분이상

6. 선생님께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피아노 교육 시 무엇을 먼저 교육하십니까?

- ①음의 위치 ②이론 ③리듬 ④계이름 ⑤피아노건반의 이해

7.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자세 ②이론 ③리듬 ④계이름 ⑤피아노건반의 이해

8.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리듬교육을 주 몇 회 하고 계십니까?

- ①전혀하지않는다 ②주1회 ③주2~3회 ④주4 ⑤매일한다.

8-1. 리듬교육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① 손뼉치기 ②언어 ③발구르기 ④타악기사용 ⑤기타()

9.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이해력부족 ②흥미유발 ③테크닉지도 ④인내심부족 ⑤기타()

10.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동기유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노래부르기 ②손뼉치기 ③게임하기 ④물질적 강화(사탕, 스티커 등) ⑤없다

11. 선생님의 학원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사용하는 교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다

11-1. ④, ⑤을 선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 ①마이엘 ②베스틴 ③어드벤처 ④알프레드 ⑤기타()

12.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교사자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하다 ⑤매우 중요하다

13.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자세교육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 ①전혀하지않는다 ②하지않는다 ③가끔하고있다 ④지속적으로 한다.

14.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시창, 청음을 주 몇 회 하고 계십니까?

- ①전혀하지않는다 ②주1회 ③주2~3회 ④주4 ⑤매일한다.

15. 미취학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아동들이 학습하고 있는 곡에 대한 감상을 권해보거나 감상교육을 주 몇 회 하고 계십니까?

- ①전혀하지않는다 ②주1회 ③주2~3회 ④주4 ⑤매일한다.

15-1. 감상을 하고 있다면 주로 어떤 곡을 하고 계십니까?

- ①동요 ②관현악곡 ③독주곡 ④합창곡 ⑤기타()

16. 미취학 아동이 피아노 교육을 통해 가장 교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흥미와 자신감 ②연주의 테크닉 ③지능계발
④정서의 함양 ⑤기타()